

##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 24:1-7)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이 계시는 무덤으로 찾아간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인들은, 분명히 죽어서 계시야 할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고 근심하며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나타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말씀 뒷부분을 계속 보시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을 때, 너무나 놀랐습니다.  
자신들이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그들은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때부터 평생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세상에 선포하며 살았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곧 사도들을, 핍박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가르치셨던 말씀의 내용을 선포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핍박을 받았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는 것이었고,  
예수님이 구약의 성취자로 오신 메시아 인 것을, 증거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선포하며 다니는, 제자들을 핍박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과 핍박은, 사도들을 멈추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3 년동안 밤낮으로,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자신이 당하실 고난과 죽음에 대해 말씀하실 때,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모두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자신이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런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리고 드디어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이 그들 안에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부활의 기쁨이 넘칠 정도로 가득하게 되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세상에 선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기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쁜 부활의 메시지는,

2000 년 후, 지금도, 세계의 모든 교회에서 오늘도 선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까?

### **1. 첫째,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 장 3 에서 5 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성경은,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분리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죄로 인하여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과도 분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돌아가신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여겨주시고,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묶여 있던 것들은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모두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 **2. 두번째,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 장 20 절에서 22 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은 후에도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한다는,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와 더불어 살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사람들이 가진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두려움이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두려움 속에 있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냥 단순한 소망이 아닌,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 이루어질 소망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산 소망을 주신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죽음까지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우리의 산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 **3. 세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이 미쁘신 분이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예수님의 탄생과 삶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300 개나 넘는 예언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부활까지도,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 장 39 절에서 43 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에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였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 졌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사실에, 증인 된 것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얼마나 믿을 만한 것이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리고 말씀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 진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은, 살아 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들을,  
우리는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4. 마지막 네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너무나도 큰 절망의 순간이었고, 패배의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비웃음을 당했습니다.  
때리면 그대로 맞고만 있었습니다.  
밟으면 밟히고, 돌을 던지면 맞고, 채찍에 맞고만 있었습니다.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니다.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몇 시간동안 십자가에 힘없이 매달려, 피를 흘리며 죽어갔습니니다.

그리고 정말 죽으셨습니다.

그 순간 사탄은 마치, 자신이 승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겼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겼다.

그러나, 그것은, 사탄의 착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은,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의 순간은,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하셨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아들의 죽음으로, 구원하시겠다고 이미, 계획하셨습니다.  
그 계획은, 이미 하나님의 오래된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계획은, 그 누구도 방해할 수도 없고,  
멈추게 할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만이 결정하시고, 하나님만이 성취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때로는 나의 삶이 잘 못 된 것 같고, 망가진 것 같고, 실패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축복과는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 조차도 보여지는 상황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순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그 누구도 망가뜨릴 수도 없고, 방해할 수도 없고,  
훼방놓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그렇게 보여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고,  
참 좋으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한 것으로 인도해 주시고,

가장 완벽하고 완전한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기쁜 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 받았고,

산소망으로 사는 사람들이며,

미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악한 세력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할 수도 없고 멈추게 할 수도 없습니다.